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1
Jan. 2021
Vol.9 No.01

- 2020~21 송구영신예배
- 새해 소망 및 다짐
- 주안예훈련 / 주안예심
- 청년부 / EM Logos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눈에 확 들어오는 주안예교회 밸리채플 표지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길 기도해 본다. <관계기사 2면>

■ 송구영신예배

‘새해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보다는 후련함이 더했던 유일한 해, 2020년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가정은 가족모임도 취소한채 조심스럽게 또 한해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즈음, 10시 부터 시작된 주안예교회의 송년행사는, 가라앉았던 교우들의 분위기를 즐거움과 위로의 분위기로 바꾸어가기에 충분했다. 물론 대면이 아닌 비대면(온라인) 으로 진행된 행사였지만, Zoom 을 통하여서 참가자끼리 서로 얼굴도 볼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된 21세기식 행

사였다. 어쩌면 지금 이 힘든시기의 소통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IT 산업의 발달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다.

담임 목사님과 김민재 전도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송년행사는, 미리 녹화된 악기연주와 율동도 감상하면서 중간중간 퀴즈를 맞추는 재미로 시간 가는줄 몰랐다. 그렇게나마 서로의 안전과, 건강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했다.

Countdown 을 시작으로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설레임 속에서 드

려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는 제목으로 담임목사님께서 새해 첫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제목은 주안예교회의 2021년 표어가 되기도 한다고 하셨다.

여호와를 안다는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전하신 그 말씀을 간절히 새기며 여전히 불안정하게 시작된 2021년이지만, 이제는 그 분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하는 여유로움으로 성숙한 한해를 시작하시는 주안에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한다.

<관계 화보 9면> | 오희경 기자 |

■ 밸리채플 새 표지판 설치

산뜻하고 세련된 간판, 복음전파 이정표 되길...

하루에도 수 많은 차량이 오가는 길에 우뚝 선 십자가와 교회 건물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준다.

“포터랜치 지역의 중심인 리날디와 코빈 길을 지나 갈 때마다 주안예교회와 바로 옆에 위치한 세퍼드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교회 표지판이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한 두 분이 골프회원들과 함께 새해를 맞아 교회의 얼굴을 산뜻하게 단장했다.

동네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과 색상을 정하고, 일주일에 걸친 공사 끝에 2개의 표지판이 드디어 지난 1월 4일 세워졌다. 이제 주변을 아름답게 조경하고, 예쁜 꽃들을 심어 많은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받고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를 소원해 본다.

| 조용대 기자 |



■ 주안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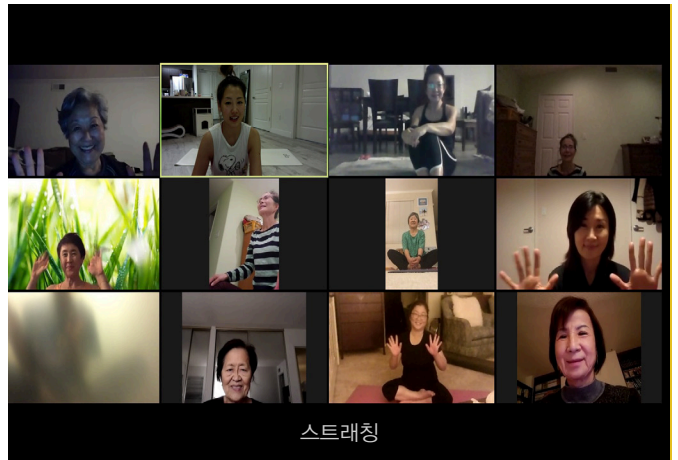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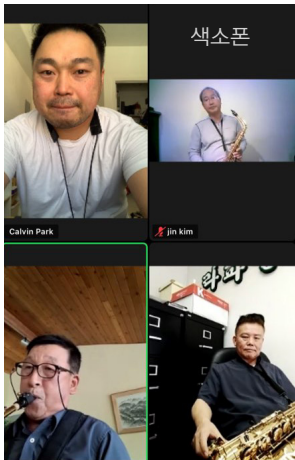
모니터 앞에 함께 모여 배움과 취미생활 열정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나타해 지는 시간을 자기개발의 기회로 이끌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주안예교회에서 제공하는 “주안예식”이라는 프로그램은 넓은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목을 마련하였다. 스트레칭, 종이공예, 성악, 건반, 기타, 드럼, 클라리넷, 색소폰, 우쿨렐레, 첼로, 등을 Zoom 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지난 12월 1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월 6일까지 8주동안 매주 토요일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동안 취미생활의 갈증을 풀어주는 탄산수 같은 시간이 될거라 확신한다.

| 오희경 기자 |



■ 장로는퇴예배

은퇴는 절차일뿐 사명의 길에 멈춤은 없다

‘사명의 길, 믿음의 경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두 분이 은퇴하지만 교회를 위해 변함 없이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안예교회 시작부터 7년반 동안 시무장로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온 김용수, 윤종화 장로의 은퇴감사예배가 지난 12월 20일 밸리채플에서 있었다.

최혁 담임목사는 노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전도자의 일생을 마무리하며, 남긴 유명한 회고와 유언의 말씀인 디모데 후서 4장7-8절을 인용해 두 장로님의 헌신과 충성에 감사하고, 아울러 두 분이 감당해 온 기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주기를 권면했다. 특히 교회 초창기 어려움을 함께 했던 시간들을 회고하며 잠시 목이 메이기도 했다.

이어 김용수, 윤종화 장로는 은퇴소감문을 통해 젊은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과정과 역경 가운데 지켜 주



시고 주안예교회 시무장로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까지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등에서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부르며 두 분을 축복했다.

〈간증 11면〉

| 조용대 기자 |

■ 교우동정

새출발 축하합니다! 새생명 축복합니다!



이의연 성도(이원근 안수집사/이명주 권사 장녀) 결혼 새해에 맞이하는 첫번째 토요일인 1월 2일 주안예교회 밸리채플에서는 희망에 찬 새 출발의 걸음을 내딛는 이들이 있었다. 이원근 안수집사와 이명주 권사의 사랑스러운 장녀 이의연 양이 신성현군을 남편으로 맞아서 평생의 동반을 약속하는 결혼식이 진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양가 가족만 참석하는 소규모의 예식이었지만 그렇기에 차분하게 서로에게 더욱 집중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되었으리라 짐작하며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끊임없는 동행이 이어지길 축복한다.



이시온(이요셉 전도사/에스더 사모 첫 아들) 출산 이요셉 전도사님과 이스더 사모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아들(이시온)의 출산으로 행복이 넘친다고 한다.

오랜 기다림끝에 부모가 되신 두분과 함께 그 기쁨에 진심으로 동참하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 되어지는 “이시온”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되는 귀한 아들로 성장하길 축복한다.

■ 코람데오 새해소망

“가족의 구원... 하나님 가까이... 선교적 삶... 안전한 일상”

조혜리 성도 저의 새해 소망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목표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기도해 힘쓰며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제 스스로 노력하는 의지를 힘써 연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있는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 선교지라는 선명한 인식을 갖고 더욱 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이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2021년이 되길 소망한다.

배이레 성도 올해 저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는 2021년도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도 시도한 적 없는 전도를 하는게 올해 제 소망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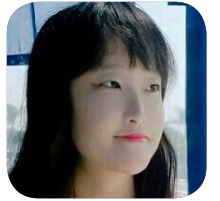


양하민 성도 2020년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고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환경으로 인해 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에 아쉬움만 남았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코로나에 포커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년도에는 내가 속

백휘재 성도 작년 2020년은 저에게 뜻 깊고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온라인 졸업식으로 진행되어 학사모도 써보지 못했고, 팬데믹으로 인해 졸업의 기쁨도 마음껏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회적 위기가 2021년까지는 종식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2021년 1월인 지금 한층 더 위험해졌습니다. 현재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셨던 안전한 일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다른 개인적인 소원보다도, 올해 2021년에는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소망입니다. 하루 빨리 이 위험한 상황이 끝나서, 모두 안전하게 웃으면서 대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코람데오 연말모임

감사와 격려... 기대 속 새해 맞이



지난 12월 20일, 2부 온라인 예배가 끝난 후, 코람데오 리더들과 주일 온라인 예배 봉사하는 청년들이 벨리채플로 하나 둘 도착하였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최혁 목사님과 함께 모여 리더들과 봉사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항상 줌으로 만나다가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보며 교제를 가지게 되었다. 서포터즈분들의 도네이션으로 다 함께 맛있는 고기를 구워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최혁 목사님께서 2020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준 리더들과 봉사자들을 격려해주시며 또 새로 시작되는 2021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양하민 기자 |



회복과 소망... 이문 남기는 한해 되길

김진석 장로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됐던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를 보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믿는자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한해였던 것 같다.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이 앞선다. 최혁 담임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 시리즈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침묵의 시간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한 마음뿐이다.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본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무엇을, 어떻게,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되짚어보게 된다.

이제는 말씀을 소환하는 것 뿐 아니라 담대히 선포하는 2021년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도들과 주변인들에게 긍정적,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한해, 지혜로운 신앙생활로 심판대 앞에서 이문을 남기는 장사에 좀더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을 지켰으면...

윤혜란 권사 지난 한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힘들고 아파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감사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새 생명, 사랑스러운 손녀 '루하'가 태어나면서 가정안에 웃음 소리가 가득합니다. 권사님들의 손주 사랑이 바로 '이런거였구나' 하며 혼자 미소도 지어봅니다. 다시 한 해를 맞이하며 신년 표어인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6:3 말씀을 붙들며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나의 소망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



며 2021년에도 항상 하늘을 호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너무 예쁜 우리 손녀 루하와 눈을 맞추고 또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차분히 말씀 공부, 골프연습도 열심히

이각균 집사 매년

새해가 밝아오면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더 나은 무엇을 추구할까 고민을 하게되는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점인데, 저는 지



난 30여년간 꾸준히 연초의 계획이, 아내와 함께 참가하는 Dance Sports 경연대회에서 어떻게 이번 해 에도 좋은 성적을 올리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몇년전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teaching license 를 취득해서 L.A. 한인 Community Center(Senior Center 를 겸하고 있음)에서 Dance Sports 강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새해가 되면 또다시 무슨 Dance 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계획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연말부터 휘몰아쳐온 Covid19 때문에 자원봉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계획을 수정하는것이 불가피 해 졌습니다. Dance 에서 Golf 로 목표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으나 나이(금년 74세) 탓인지 좀처럼 발전이 없고, 어떻게 실력을 향상 시켜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우선은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을려고 꾸준히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새해의 큰 각오는 작년말에 잘 아는 장로님으로부터 "새 번역 성경책"을 선물 받았는데 읽기 시작한지 39일만에 일독을 마쳤고, 금년에는 좀더 차분하고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한번 더 읽을 작정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40여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멀리한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확신은 없는 상태이지만, 말씀을 읽고, 들으며 열심히 믿음을 키워보려 합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저의 새해의 각오는 "예수님과 의 동행"이라고 말씀 드리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EM 예배

LOGOS EM Kicks Off New Year with New Structure



The weekend of January 9th and 10th, Valley chapel had a bustling of footsteps and fresh energy in the air as ~20 EM congregants gathered for a kick off event on Saturday and the first live Lord's day worship service of 2021 (socially distanced with proper safety precautions in place). Ps Choi shared his vision and new structure for EM which included training and mentoring for leadership development and a new format for Sunday services.

After gathering input from EM members through 1:1 conversations and an online survey, he shared that EM will have dedicated worship at 1:30pm on Sundays, with live and streaming options. Pastor Choi's English subtitled sermons will be delivered via video with the goal to spiritually align in the word as one ICCC church. Leveraging the model from KM, small group meetings will take place immediately after service for deeper discussion and sharing. There

will no longer be regular Friday evening services but rather specific Fridays will be reserved for topical workshops throughout the year.

We are excited about the changes ahead and the movement of the Spirit to lead His EM to oneness and growth.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EM,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to Ps Sam Lee (Cell: 818-223-7249) or Tom and Laura Park (TLparkfamily@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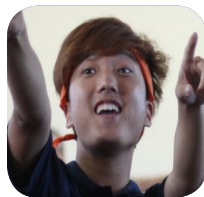
■ EM 첫 예배 소감

As we were getting ready to start off 2021 many exciting changes were ready to be made to our EM Ministry. I didn't really know what to expect, but I was excited and ready to see our EM grow. During our kick off event for the new year to come, P Choi announced his vision for our EM ministry and the steps he plans to take to get there. The new leadership system that's taking place, the new volunteers that our ready to serve our ministry, I can't wait to see what our ministry will be looking by the end of this year.



| Mathew Ya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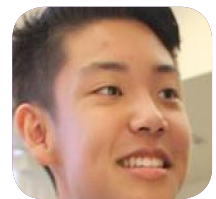
As EM goes into a new chapter and begins its new journey, I would say that the first Sunday service we had after the kick off was one that was full of blessings and hope. Of course, the fact that it was live was a major factor towards how incredible the experience was but it was really great to have such an experience with the EM community. The praise, the sermon, the small group time, it was so refreshing to know and witness how EM is going to grow from now on and the effort that is being put in for this ministry. As I am grateful



towards all the leaders/pastors for making this all possible, the most gratitude obviously goes to God for even making this all possible. Looking forward to what the future has in store for us and I can't wait to experience it all with ICCC and EM as we go through it all as one body in Christ.

| Joshua Kim |

It's been a while since I've taken part of any sort of leadership training, and I was a bit unsure what to think with this coming EM training. I was however very blessed this past Wednesday, and feel that I've received great wisdom. Last Wednesday Pastor Choi talked about preparing ourselves so that we can be used by God for His great purpose. He told us the story of David and Joseph, who all endured hardship and challenges throughout their lives to prepare themselves to ultimately fulfill their purpose for God. It was very encouraging wisdom, especially during these times during the quarantine. Pastor Choi helped remind me that I shouldn't waste my time, even during quarantine. Everyday is a day that God has blessed me with to train and prepare myself for His purpose for me. I will continue to pray that I'll have the perseverance, initiative and wisdom to use my time well and better myself every single day.



| Caleb Yun |

■ 목장일지/ 밸리3목장
(목자 전익성/전영옥 집사)

■ 송구영신예배 목장 찬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해피 뉴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새해는 마음이 설렌다. 보고 싶은 얼굴, 축하 인사는 건낼 수 없지만 영상 속에서 마음을 전한다. 송구영신 예배 특별순서를 위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가 되어 찬양하는 목장 식구들 얼굴엔 웃음이 넘치고 행복하다(사진 위, MP채플15목장)

황무지 언덕 위, 이곳이 멋진 찬양의 언덕이 될 줄이야...
밸리채플 6목장 여성목원들이 마스크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새해맞이 울동 찬양을 하고 있다.



1월10일 오랫동안에 밸리채플에 모인 EM 성도들, 새해, 새로운 포맷으로 예배를 드린 후 체육관에서 대화와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다.

진솔한 나눔, 생활의 기쁨

매 주일 오후 2시, 밸리채플 3목장 나눔방,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씩 뜬다. 코로나로 대면예배가 막힌 지 거의 10개월... 이젠 줌을 통한 만남이 새로운 일상이 됐다.

“주일마다 담임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목원들과 나누는 것이 내 생활에 큰 기쁨이다” 라는 전익성 집사님(목자)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난다.

“이렇게 좋은 설교 말씀을 짧은 시절 듣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는 권사님의 말에 비슷한 연배의 목원들이 함께 공감한다. 지난 주 눈수술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 주 동안 있었던 소소한 뉴스들을 서로 나눈 후, 목자 집사님의 사회로, 장로님의 기도 후 말씀나눔이 시작됐다.

연장자이신 권사님이 담임목사님의 설교, 침



묵 시리즈의 마지막인 7번째 주제인 ‘동행’에 대한 요약 있는 후 한사람 씩 돌아가며 받은 은혜와 깨달음, 결단이 이어졌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과연 계산할 것이 있는가’라는 가법지 않은 물음에 모두가 각자의 삶을 돌아 보았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별로 없는 데 조바심이 나오, 이때까지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았구나 후회 합니다’ ‘나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그나마 행한 조그만 선행도 남들로부터 칭찬 받아 다 까먹고 하늘나라 통장에 밸런스가 빈털털이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선물 받으면 잠깐 기쁘지만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쁘는데...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합니다...’ 한사람씩 돌아가며 나누다 보면 언제나 한시간이 촉박하다.

목자의 마무리 멘트와 마무리 기도로 나눔을 마치고 잠시 환담을 나눈 후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일 승리하기를 서로 축복하며 헤어졌다.

■ 평신도사역훈련원

계속되는 비대면 상황 속 말씀 훈련 열기 후끈

평신도사역훈련원에서는 2021년 주안에훈련을 시작한다. 주안에말씀은 16기, 주안에삶은 17기, 그리고 주안에일꾼은 2기가 시작을 기다리며 신청을 받는 중에 있다.

주안에교회의 교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온 훈련이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훈련이다. 이 모든 과정을 수료하신 교우들에게는 다음 단계의 더 깊이있는 수준의 훈련도 준비되어 있어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훈련사역이다.

또한 평사원에서는 가정사역 훈련도 병행하고 있으며 성경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인도하는 모임인 “마더와이즈” 교실과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기 위한 “파더와이즈” 교실도 신청을 받는 중에 있다.

모든 교육은 zoom 으로 진행이 되며 교회 홈페이지(www.icccla.org) 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 | 오희경 기자 |



주안에삶 17기를 이끌어갈 인도자들이 줌을 통한 미팅을 하고 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안에교회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

주안에일꾼

총선: 2월 5일~4월 16일 (평요일 7:30pm)
신선: 1월 3일~1월 24일 (4주)
신선: 주안에말씀, 성경, 삶, 및 간제 수료자

영커플 부모 세미나
Spiritual Parenting

기간: 1월 19일 화요일 부터 2월 23일 (6주간) | 강사: 최 혁 목사
시간: 9:30PM, ZOOM을 통해서

주안에말씀 16기

신선: 1월 3일 - 17일 (3주)
총선: 1월 19일~5월 18일 (목) 7:30pm
오전: 1월 21일~5월 20일 (목) 10am

MOTHERWISE
마 / 더 / 와 / 이 / 즈

주제: 지혜

마더와이즈 1 (초등학교 자녀) 2/3 - 3/31 매주 수요일 8:45P
마더와이즈 2 (중·고 자녀) 2/4 - 4/1 매주 목요일 8:45P

LIFE IN CHRIST 주안에 17기

신선기간: 1월 3일~1월 24일(4주) | 교재비: \$5
총선기간: 1월 26일~3월 9일(목) 오전 10시
1월 28일~3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FATHERWISE
파 / 더 / 와 / 이 / 즈

주제: 지혜로운 아버지

파더와이즈 2/2 - 4/13 매주 화요일 8:45P

EM Leadership Training

LORD'S STE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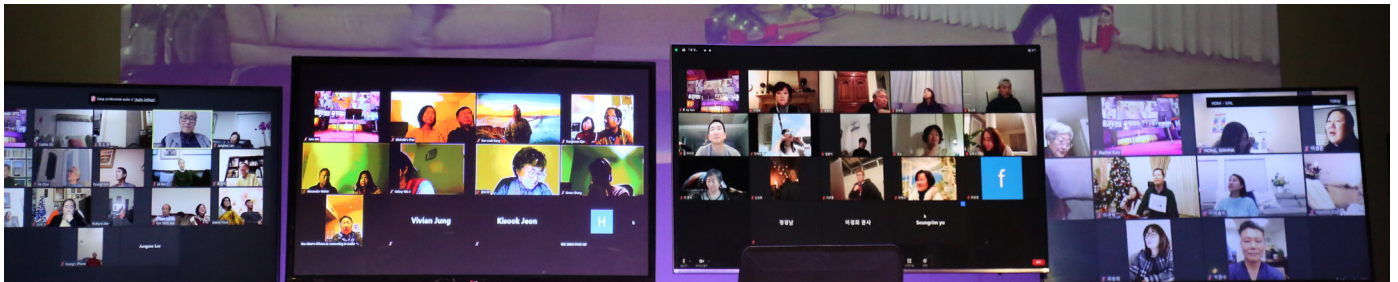
Class on Biblical Stewardship w/ Sr. Pastor Hyuk Choi
1/13 - 2/17 (7:30pm)

하비빙이 쓰시는 사람 [사람:인]

청년부 세미나

기간: 1월 11일 월요일 부터 2월 15일 (6주간) | 등록기간: 1월 9일 저녁까지
시간: 저녁 8시, ZOOM을 통해서 | 강사: 최 혁 목사

몸은 집에 있지만 눈과 귀를 성전을 향해



2020~21 송구영신예배는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예배와 줌을 이용한 쌍방향 참여로 이루어졌다. 최혁 담임목사와 김민재 전도사의 공동 MC로 3부에 걸쳐, 영상으로 보는 주안예교회 발자취, 목장 대표들과 방청객을 연결한 퀴즈, 예배 순서로 장장 3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 2020년 내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한 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주심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 구하지 않아도 먼저 준비해 주시며,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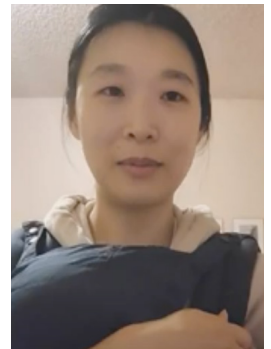


| 최인희 사모 |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더 많아

올 안해 저희 가정은 저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월에 넷째 한결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저희가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셋이 있고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임신기간 잘 지나고 그리고 3월에 아이가 건강하게 무사히 태어났고 벌써 10개월이 되었어요, 지내면서 지금 돌아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에는 기쁨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함께 해주

시고 저희를 살피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팬데믹 안에서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희망 잃지 않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영인 집사 |

■ 한국에서 온 편지

오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살롬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교회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한 그리움을 전합니다. 안녕하시지요?

이곳은 하얀 눈으로 산야가 덮힌 겨울 다음이 한참인 요즘입니다. 한편으로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한 제약들이 일상 생활의 변화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간들을 지나며 모든 시절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일상에서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한 한날 한날들이 삶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 삶에 동행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암 투병 중이었던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병상세례의 여정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언약을 이루시는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각에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 증인됨의 시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슴과 영혼에 깊숙히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천국시민으로 입성하신 아버지와 이별이 슬픔 대신 전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과 기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던 딸아이와 아이아빠와의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며 아이와 아빠의 만남이 지속되고 함께 하는 시간 가운데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제 안에 구원의 소원을 두시고 그 기쁜 뜻을 위해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 같아 낙담되고 기도의 응답이 내 뜻과 달라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의 시간들이 지나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마음의 작은 소원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은혜이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늘 이 작은 자를 기억하시고 소소한 하루하루의 일상에서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러지고 공동체 식구들과의 대면모임을 가질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에 일상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신앙하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시길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명자 권사 |

■ 선교지 멕시코 소식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리웁습니다

주안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교회와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곳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현지에서 50가정 이상에게 음식을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가정이 일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가정은 일주일에 3~4번밖에 일을 못하는데 정부에서 음식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해 우리 교인중 한명이 담낭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의 화장실 공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봉사하며 교제했던 시간들이 매우 그리웁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를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다 잘 지내는지 매우 궁금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큰 영

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심하면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된 지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허용해 주었습니다. 교인의 98%는 다시 교회에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 루디 로페즈 목사 |

못다한 영혼구원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먼저 지금까지 저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의 믿음의 여정은,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는 이웃에 사시는 이북 할머니의 집요한 권유를 따 돌리기 위해, 결혼하면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겠노라고 덜컥해버린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온 첫 주일날 아침잠을 즐기고 있는데, 교회에 가자며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겠다는 저의 양탈에, “나는 오늘을 위해 3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어. 결혼하면 교회가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해”. 라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가겠다는 항복에, 입이 귀에 붙을 정도로 함박웃음을 지으신 할머니 뒤를,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뒤따라 나선 돌아온 탕자의 교회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역지로 시작된 미지근했던 저의 신앙 생활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축복으로 시작된 신혼 생활은 개소금 냄새 대신, 아내의 양쪽 귀에 종이염이 재발하면서, 거의 1년 동안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과 남남으로 갈라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저와 아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와 하고, 부흥회를 찾아다니며, 서툴지만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저와 아내를 미국으로 인도하셨고, 도착하자마자 교회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 잡은 직장 의 의료보험으로 아내의 두 귀는 거

짓말 처럼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의 귀가 아프기 시작된 것도, 미국에 정착하게 된 것도, 아내의 귀가 깨끗이 낫게 된 것도, 저희 부부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계획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직분까지 허락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랑에 빛진 자로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 저와 저의 가정보다 교회와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행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지난 40년간의 미국 생활을 돌이켜 보면,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나 선교지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나의 만족과 의를 내세웠던 지난날의 모습을,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도님을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경건의 모양만 있고 오히려 집사님보다도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그리고 최혁 목사님을 만나 크나큰 말씀의 은혜를 입고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지 못했음을,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바라옵건대, 히스기아왕의 간절한 기도처럼, 비록 겨자씨보다 적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못다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뜻대로 신실히 행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점투성이인 저를 주님의 도구로 지금



까지 쓰임 받게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지금 이 땅에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퇴 후 원망스러웠던 이북 할머니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 저는 또 다른 이북 할머니가 되어, 할머니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이웃을 향한 마음을 본받아 못다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 하겠다고 다짐을 해 봅니다.

힘이 쇠할 때까지 교회와 소외된 선교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손을 더할 것이며, 남은 여생이 후회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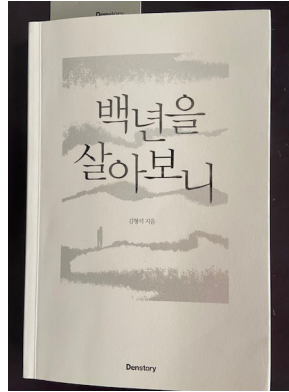


성탄주일 여성4중창팀(왼쪽부터 오병순 유영애 정경화 장성은 권사) 이 맑은 화음으로 오 거룩한 밤 특송을 부르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구자형 권사

■ 추천도서/ 백년을 살아보니(김형석)

“늙어 가지 말고 익어 가는 인생을”

7080 학번을 달고 학창시절을 보냈던 분들이라면 '김형석' 교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 싶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정의와 젊음의 패기만을 가지고 확고한 목표나 방향을 정해봐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밀려서 방향을 하던 청춘들에게, 그분의 강의와 수필은, 기독교적 실존주의를 배경으로 현대인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는 큰 어른으로서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기에 충분했다.



'백년을 살아보니'란 이 책 또한 그분의 성품처럼 부드럽고 시적인 표현으로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그분의 이념과 철학, 종교 그리고 인생관을 차분하게 정리를 하신 세기에 몇권 나올수 없는 아주 귀한 서적임을 자신있게 권해본다.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삶의 궁극적 목표는, 슈바이처의 고통받는 이웃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렸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대목은 읽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노년기에 대한 정이도 신선하다, 나이보다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40대의 노인과 60대의 젊은이가 될 수도 있음을 제시하며,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라는 평언을 남기신, 올해로 101세를 맞으시는 지성인 “김형석” 교수님의 지혜를 마주하는 행운과 함께 또 한해를 열어보실은 어떨까 싶다. | 오희경 기자 |

■ 포토 에세이

나의 시계, 하나님의 시계



우리는 도대체 하루에 시계를 몇번 보는지 알 수 있을까? 왜 시간이 됐는데 안오실까? 아직 그 시간도 안됐는데 왜 벌써 왔지? 하나님도 시계를 보실까? 온다는 사람이 제 시간에 안와도 화가 나고 너무 일찍 와도 화가 난다.

간절히 바라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 외로운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조마조마한 시간, 그리운 시간, 아름다운 시간, 화난 시간, 사랑하고 싶은 시간...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있고, 또 있을 것이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시간은 그 아무도 알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들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 차이가 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시간이 끝이 난다. 시계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 남은 삶을 마무리 잘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면서 남은 생 살아야할 것이다.

| 사진, 글: 최호기 기자 |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민유선,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더, 임용자,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